

未來의對話

헨리·스틸 著

朴仁浩 譯



☆이 短篇 소설은 「헨리·스틸」著 「人間, 앞으로의 30년간」에서 抄譯한것. 舞臺는 21 세기에 進入하기 직전 그러니까 30년후의 어느날 어떤 病院 진료실에서 있을 醫師와 患疾의 對話를 假想的으로 쓴것. 그러나 이 未來의 對話는 매우 科學的인 分析에서 이루어 진것임.

「스미스 부인. 당신은 99세라는 나이에 비해서 너무 젊으시군요.」
의사는 콤퓨터보고서를 서류함에 집어 넣으면서, 중년으로 보이는 매력적인 여성환자에게 웃음 띤 얼굴로 말한다.

「네단히 고맙습니다. 내가 21세기

까지 살다니 꿈만 같군요.»
부인도 매우 기분이 좋아서 의사에게 물었다.

「부인은 아직도 매우 건강하십니다.» 의사는 다시 서류를 꺼내 보면서

「컴퓨터 계산에 의하면 앞으로 부인은 11년 7개월 3주간을 더 사실수 있습니다. 물론 뜻밖의 사고나 중병이 생긴다면 결과는 달라지게 되지만요.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며칠 몇시간을 더 사실수 있을지는 계산은 가능합니다만 그럴 필요까지는 없을것 같아서……」

「네. 좋아요. 됐어요.» 스미스 부인은 성급하게 말하면서

「20세기에 태어나서 21세기까지 산다는 것은 즐거운 일입니다. 그걸로 됐어요. 내 수명을 다른 사람이 정확히 안다는 것은 싫군요.»

의사는 빙긋이 웃었다.

「알았습니다. 아직 문장은 끝이 안났는데, 문장 끝에 찍을 피리어드를 미리 찍는 격이군요. 숫자에 대

해서는 더 신경을 쓰지 마십시오. 혹시 다음날 더 정밀한 검사를 하면 숫자는 달라질 수도 있는 겁니다. 아픈데 10년은 더 남아 있으니 천천히 생각해서도 늦지 않습니다.

그런데 夫人, 인공기관(人工器官)을 좀 수리하시면 어떠 실런지?」 스미스夫人은 숨을 가쁘게 쉬면서 「아니 이제 모든 것은 이 상태로 괜찮다는 말씀으로 알았는데, 또 무슨 말씀이십니까.」

「9년전에 이식(移植)하신 새끼소의 심장은 괜찮으시죠? 아무런 이상도 없으시겠죠?」

의사는 웃으면서 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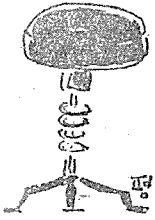
「네. 아무 이상없어요. 기분은 더 젊어진것 같은데요.」

「그러시겠죠. 별일은 없으실겁니다. 그러나 위(胃)와 그전에 자궁 절제를 하셨던 자리에 초기암이 보이는군요. 이 까직거야 간단히 치료가 됩니다. 하지만 肝은 새것으로 바꾸시는게 좋겠는데요.」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한달에



“집으로 가시겠다는 말씀입니까? 농담이시겠죠”



■ 自家診斷포인트

진강도박

부종(浮腫)이 생겼다

부종(浮腫)은 우리몸의 이상증에서도 비교적 간단

히 찾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병의 종류도 여러 가지이고 아프지 않은 것도 많으므로 그대로 놓아 두다가 위험한 상태를 만나는 수가 많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부종은 혈관밖의 조직간액(間液)이 조직속에 이상하게 고인 상태를 말한다. 온몸에 고인 경우도 있고 손, 발, 얼굴등 몸의 부분에 고이는 수도 있고 내장 조직에 고이는 때도 있다.

의사들이 환자에게 부종이 나타날때 병명을 판단하는 재료는 먼저 신체의 어떤 곳에 부종이 생겼는가 그리고 그부종의 상태는 어떠한가, 색깔, 나타나는 시간, 통증등을 조사하는 것이다.

피부를 손끝으로 눌러 움푹들어가서 솟아 나오지 않으면 몸무게가 보통때보다 약 1할정도 증가해 있는 것이다.

전신(全身)에 나타나는

부종은 심장병으로 제혼자 심장이 움직일 수 없는 심부전(心不全)과 신염(腎炎)이나 베르르제 등의 심장병, 결핵, 암, 빈혈등이 심해져서 영양부족을 일으켰을 때 생긴다.

심장병에서 오는 부종은 특히 다리쪽에 심하게 나타나고 저녁때가 되면 신발을 신을 수 없을 정도가 된다.

여기에서 숨이 가쁘고 천진적으로 약한 치아노제가 나타나는 수가 있다. 심장병은 혈액을 밀어 내는 힘이 약해지는 것이므로 모세혈관에 피가 고이게 되고 혈관에서 조직속으로 수분이 옮겨지기가 힘들게 되어 부종이 생기는 것이다.

전신에 나타나는 부종으로 군데군데 여문 부종이 있는 것은 혈전성정맥염(血栓性靜脈炎)이다. 심장병에 의한 베르르제는 부드러운 부종이다. 또 부종

1천달러 생활보장비 이외엔 다른 돈이 없는데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인, 부인은 그동안 내가 진찰해온 환자중에서 1백년을 생존한 환자는 부인 뿐입니다. 의학이 생겨난이후, 그 성과가 95%가량 달성된 시대에 태어나셨기 때문에 부인은 의료(醫療)의 혜택을 이 세상의 누구보다 특별히 입으신 셈이실 겁니다. 25

년전부터의 부인의 카르테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당신이 오래 산다고 하는 것은 그리고 오래 사는데 무엇이 필요한 것인가 하는 것은 내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아마 부인도 이것은 시인하시는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새 肝을 무료로 드릴려고 생각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만 어떤 방법으로 시행할 것인가, 그것만 이야기하시면

이 부드러우면서 창백한 피부부를 하고 있는 것은 저단백혈증(低蛋白血症)이다. 특히 아침에 일어 날때 얼굴이 매우 붓는다.

손, 발의 한쪽만이 붓는 것은 정맥이나 임파관 또는 혈관운동신경의 이상때문이다. 화장을 하여 얼굴에 습진이 생겨서 아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면 얼굴이 붓는다. 붓는 곳이 팔장개 되어 있으면 세동맥(細動脈)이 늘어남 때문이다. 아프고 열이 있으면 세균감염에 의한 염증이 생긴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아무튼 부종이 몸에 생긴다는 것은 신체의 어느 곳인가 이상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므로 고통이 없다고 해서 내버려두면 위험을 당할 수가 있다.

가슴이 아프다

조용하게 있는데 또는

생각나는 것이 없는데도 가슴이 아프고 숨이 가쁘며 심장이 뛰는 것은 그원인되는 병이 있다.

호흡곤란은 폐, 기관, 심장의 병인데 중요한 것은 내쉬기가 피로운가 들어 쉬기가 피로운가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병명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심장이 뛰는 것은 심장병, 혈관병, 자율신경부조(不調) 빈혈등에서 생긴다. 가슴이 아픈 것은 여러가지 병에서 생기는데 아무리 가슴이 아파도 늑간신경통(肋間神經痛)등의 말초신경단의 병이므로 생명경계는 없다.

최근 중년부터 생기는 심장병으로 협심증, 심근경색(心筋梗塞)등의 아픔은 심근(心筋)속의 영양혈액이 줄어 들고 나쁜 것이 고이는데서 생긴다.

협심증은 잠자는 가운데 갑자기 생기는 수가 많은데 운동을 하거나 흥분을

할때 또는 식사 후에도 가슴이 때근하거나 가슴때가 누지러는 뜻이 피로운 경우가 있다. 안정을 취하면 30분이내에 자연스럽게 낮고 생명에는 직접적인 위험이 없다. 이 가슴아픔은 왼쪽 어깨나 왼쪽팔에 번지는 수가 있다.

심근경색은 운수나쁜 심장병이다. 그러나 반드시 죽는 병은 아니므로 낙심할 필요는 없다. 아픔은 협심증과 비슷하나 매우 고통이 심하고 가슴전체에 퍼져 가거나 위경련처럼 옷배부터 아픈 수가 있다.

그러므로 위가 심하게 아프다고 해서 위병이라고 속단해서는 안된다. 이 심근경색에 의한 아픔은 몇 시간씩 계속되고 쇼크, 발열, 맥박이 고르지 못하는 수가 있다. 니트로그리세린등 협심증에 관한 약도 아무 효과가 없으므로 전문의에게 찾아가는 것이 제일 좋다.

될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방법이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두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주 멋드러진 방법인데요. 이식은 아무 것이나 가지고 하고, 망가진 간(肝) 옆에서 새 간을 키우는 방법입니다. 나는 이 방법으로하고 싶는데, 이것은 다른 병을 일으킬 위험성이 있어서 염려가 됩니다. 다른 한가

지는 인공장기은행(人工臟器銀行)에서 새 肝을 갖어다가 이식하는 재래식(在來式)방법이죠. 이 방법은 98%의 성공률이 보장되어 있어요.」 「조금 생각해 볼 시간을 주세요. 역시 나중번이 좋을것 같긴 하군요.」

「또 제 3의 방법도 있습니다. 그것은 냉동수면법(冷凍睡眠法)이죠.」 「아, 그것 잘 알죠. 갑자기 냉동시

심장이 조금씩 나빠져도 자신은 잘 모르고 있어 겉으로 보기에는 건강한 듯이 보인다. 그러나 병이 심해지면 심장활동력이 줄어들어 조금만 무리를 하여도 숨이 가쁘고 가슴이 췌다. 이것은 심부전(心不全)의 시작이고 부기(浮氣)가 있으면 그대로 내버려 둘 수 없다. 빨리 원인을 찾아서 적당한 치료를 하면 대부분은 평생사용해도 견디 낼수 있도록 낫는다.

기타 가슴아픔이 생기는 병은 흉막염(胸膜炎), 자연기흉(自然氣胸) 등이 있다. 늑막강에 물이 고여서 생기는 흉막염이나 늑막강에 공기가 고여서 생기는 자연기흉은 가슴아픔, 호흡곤란, 심장고동이 심해지나 늑간신경통과 구별해서 잘 진단할 것이다.

음부가 가렵다

산부인과 환자의 1 환정도는 음부가 가렵다고 호소한다. 특히 20대여성이 많다. 이들을 보면 먼저 트리코모나스질염과 칸디다질염을 생각해야 한다. 외음부의 가려움을 호소하는 환자의 25퍼센트가 이들 질염이다.

또 여류이면 사타구니 사이에 땀이 흘러 이 땀이 질내로 들어가 대하(帶下)가 많아지고 질의 청결도(清潔度)가 낮아지게 되므로 알카리성대하가 많아진다. 외음부는 알카리성에 약하여 가려움이 생긴다. 기생충, 요충 이등이 외음부나 음모속에 살고 있어서 외음부가 가렵고 외음염(外陰炎)을 일으키는 사람도 있으므로 외음부는 깨끗이 해야 한다.

외음부에 습진이 생기거나 정맥유(靜脈瘤)가 심해

지면 염증을 일으켜 가렵게 된다. 또 오줌이 흘러 버리는 수술후의 후유증이 나 오줌을 자주 누는 환자도 국부가 깨끗이 못하여 가려움을 호소한다.

살이 찼던 여자들은 특히 여름철에 사타구니의 마찰로 외음염을 일으켜 잠도 못자고 외음부를 긁어서 반노이로제에 걸린 사람도 있다. 부부간 성적 불만때문에 가려움이 생기는 수도 있다.

의사들은 가려움을 치료할때 그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나 무엇보다도 먼저 가려움을 빨리 없애려 한다. 그리하여 ① 가려운곳을 깨끗이 씻고 잘 말리다. ② 손톱을 잘라다. ③ 반츠를 밀착시키지 말라. ④ 알카리성식물을 먹어라. ⑤ 심신을 편히 쉬어라 한다. 그리고 대중요법으로 바르는 약, 항히스타민제, 에스토리루제제물사용한다.

켜서 지하실에 넣어 두는거죠? 50년이던 100년이던 마음대로? 그러나 그것은 꼭 소생한다고 믿을수가 없지않습니까.」

「물론 그렇죠. 그러나 이 분야의 기술은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의사는 자신있게 말했다.

「내가 부인에게 권유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재미는 있어요. 이를테면 몇십년후의 미래의 세상을 볼수있

는 호기심 같은 것도 있지 않겠어요?」

「나는 싫은데요. 그냥 간이식(肝移植)을 하겠어요.」

「좋습니다. 그럼 내주로 예약을 하십시오. 간이식 때 2개의 압도가 같이 수술하겠습니다.」

● 기생충 박멸표어

어린이 건강은 기생충 예방부터